25일 Market Index
코스피 4697.51 (-308.52)
코스닥 650.64 (-15.24)
금리(국고채 3년) 3.583 (-0.057)
환율(원-달러) 1343.2 (+0.8)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메모리 쇼크' 샤오미, 실적 악화
업계, 칩 탑재 줄이고 가격 인상

3분기 샤오미 매출 5%↓21.6조
당기순이익 68%급감한 7800억
삼성전자, 매출 늘었지만 적자 전환
프리미엄 확대·비용 효율화 나서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샤오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과 설계 변경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고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을 방어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차량과 로봇의 메모리 탑재량을 축소했으며 부품업체들은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메모리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샤오미가 전날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072억4000만위안(약 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8억8000만위안(약 7800억원)으로 68.4% 급감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과 함께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스마트폰 수익성 악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샤오미는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형 스마트폰 출하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30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했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판매가격(ASP)은 39.8% 오른 1486위안(약 3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루웨이빙 샤오미 총재는 이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측면에서 큰 폭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며 가격대별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위축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54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3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도 수익성이 악화했다. 올해 3분기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 매출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으나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구매·개발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26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아파트. '그랜드 힐 가든' 수경시설과 조형물. /성채리 기자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전국 입주아파트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 시 상 식 : 12월17일





中 유인 우주선 발사

25일(현지 시간) 중국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선저우 24호 유인 우주선 임무 환송식이 열려 파키스탄의 무함마드 지샨 알리, 중국의 우이와 탕훙보 우주비행사가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 왼쪽). 선저우 24호 유인 우주선이 창정 2F 로켓에 실려 우주정거장 '톈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1일 천하'… 천조전자 반납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코스피 6.16% 하락한 4697.51 마감
하루만에 시가총액 200조 날아가
삼전 9.87%, 하이닉스 11.05%↓
日·中 등 국제 증시, 엔비디아도 하락

-6.16%(코스피), -9.87%(삼성전자), -11.05%(SK하이닉스), 25일 코스피 지수는 말 그대로 "식겁했다"였다. 코스피는 전날 급등을 뒤로하고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 무너져 내리며, 4700선 밑으로 주저 앉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기대서 성장하고 주가가 오른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6.16% 폭락한 4697.51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약 260조원 줄었다. 국내 증시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9.87% 떨어진 17만700원, 11.05% 떨어진 103만원에 장을 종료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7만원까지 밀렸으며, 시가총액도 1000조원을 밑돌게 됐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AI 황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의 귀환 하루 만에 글로벌 증시도 녹아 내렸다. 이날 일본 니케이225가 2.78% 하락했고, 중국 상해종합,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1% 폭등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5.86%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1.48%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88% 하락했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GS그룹, 허서홍·이태형 사장 승진

40명 규모 정기 임원인사
대표이사 4명, 부사장 6명 승진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이태형 ㈜GS 대표이사 사장

GS그룹이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태형 ㈜GS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40명 규모의 2027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사업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경영진을 중용하면서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이어가, 경영 안정 속에서 사업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GS는 사장 승진 2명, 대표이사 선임 4명, 부사장 승진 6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 선임 24명 등의 2027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계열사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로 사장에 오른 허서홍·이태형 사장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각각 유통과 재무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 사장은 2025년 GS리테일 대표이사에 오른 뒤 고객 가치 차별화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AI 전환(AX)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했다. 이 같은 체질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가 둔화됐던 주력사업의 실적도 살아났다. 올해 3분기에는 편의점·슈퍼마켓·홈쇼핑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GS리테일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 사장은 앞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이고 AX 기반 경영 혁신을 중장기 성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태형 사장은 ㈜GS 재무팀장(CFO) 겸 PM(Portfolio Management)팀장으로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는 유임됐다. 지난해 9개 계열사 대표를 교체한 데 이어 올해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존 경영진이 추진해 온 혁신 과제를 이어가도록 했다. 다만 에너지·발전 자회사 4곳에는 새 대표를 내정했다. 인천종합에너지에는 김진학 GS에너지 사업전략·해외투자실장, GS구미열병합발전에는 이종진 GS E&R 구매실장, GS동해전력과 GS반월열병합발전에는 각각 허창익 경영관리부문장과 여승섭 발전부문장이 이름을 올렸다.

/원관희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배당
▲찬반 빠진 원전 공론화…내달 시민 숙의토론, '중립성' 시험대 /사진 뉴시스
▲'한동훈 징계' 폭로전 점입가경…"10억 요구" vs "張 요청 선거기획단 업무비"
▲임용시험도 'AI커닝' 차단…적발시 응시자격 '5년' 정지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노재헌 주중대사에 소환 통보
▲굿네이버스 "기후·환경 기준에 아동 특성 반영돼야" 국회에 촉구